

“정확한 진단이 통증 치료의 시작입니다”

세리토스 <하나한의원> 더 넓고 쾌적한 장소로 이전



목이나 허리, 어깨, 무릎 등 근골격계가 아프면 ‘나이 탓이겠지’라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만성통증으로 옮겨가기 전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다.

세리토스 <하나한의원>의 엄성환 원장에 따르면 통증은 원인이 여러 가지이고 증상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통증 발생 초기에 치료하면 단 두 번의 침 치료로도 통증을 잡을 수 있다. 거꾸로 통증을 오래 방치하면 치료도 어렵고 그 기간도 오래 걸린다.

엄 원장은 “통증은 어느 부분에 발생하든 스트레스를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통증의 원인이 근육, 인대, 신경 등 어떤 부위와 조건으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 후 침 치료, 부항 등 한방적 치료를 통해 통증의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증의 완전한 치료는 통증 부위와 지속 기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약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면 가능하다.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도 통증 완화의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엄 원장은 “특히 최근 들어 나이 구분 없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 증가와 앉아서 일하는 시간 증가에 따라 목이나 어깨 부위의 통증, 좌골신경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었다.”면서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앉거나 설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2년의 임상경험을 보유한 엄 원장은 10년 동안 주행 침법 공부도 했다. 주행침법은 조선 왕실에서 사용하던 궁중침법으로 특히 만성통증을 비롯해 뇌 관련 질병, 불임, 알러지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 원장의 가문은 한의사 집안이다.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도 한의사였다. 4대째 대를 이어 한의사로 일하고 있다. 전통이 있는 가문에는 남다른 보물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한의학의 경우는 그렇다. 한 가문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치료 방



▲ <하나한의원> 엄성환 원장

법은 그래서 비방이라고 불린다. 엄 원장의 아내도 한의사로 부부 한의사로 일하고 있다.

엄 원장은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그는 그의 한방 의술을 어려운 사람에 위해 나누고 있다. 그래서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지에서 의료 선교를 이어오고 있다.

엄 원장은 “앞으로도 아픈 사람을 돕고 한인사회와 선교지를 섬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하나한의원> 이전

<하나한의원>은 2005년부터 진료를 해오던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더 넓고 쾌적한 진료실을 마련해 이전했다.

치료 시 각종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562) 926-0333

▶ 주소: 13079 Artesia Blvd. #130 Cerritos, CA 90703

격리 면제 신청 시 한국행 항공권 구입 증명해야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시 2주간의 격리 면제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한국행 항공권 구입 증명 서류가 포함됐다.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지난 25일 격리 면제 신청 납부를 방지하고 실수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하루 뒤인 26일부터 격리 면제 발급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격리면제동의서, 서약서, 백신접종

증명서, 여권사본, 체류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에 ‘15일 이내’ 한국 입국 예정일이 명시된 항공권(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격리 면제는 온라인(consul.mofa.go.kr)으로 신청하며, LA총영사관은 제출 서류 확인 등을 거쳐 신청 후 72시간 안에 이메일 등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격리면제서는 4부를 출력해 ▶공항 검역대 ▶입국심사대 ▶입시 생활시설에 한 부씩 제출해야 하며 한 부는 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이 소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 제정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을 제정했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지난 23일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해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한국계 최석호 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인 새런 쿼크 실바 하원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치의 날’인 11월 22일은 배추

와 무 등 주재료에 소금과 양념 채소, 젓갈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11월)가 어우러져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김치 산업 진흥, 김치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11월 22일을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로 제정했다.

Implant \$1,700 \$1,200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잇몸치료 \$600 \$400	틀니 \$1,500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